

주간기도정보

2025. 7. 1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교계 “성평등가족부, 헌법 취지 어긋나”...‘양성평등’ 명칭으로 변경 촉구

명칭 변경, 사회적 합의와 정책 실효성 검증이 관건



▲여성의들이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반대하는 데모에 파견을 출가하고 있다. (주진영)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독교계가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명칭을 ‘양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분명한 것은 성평등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히 동성애 등 성적지향의 부분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호히 반대한다”며 “2021년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

으며, 정부는 표현의 모호함을 없애고, 양성평등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행동에 대한 문제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한다”며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비판할 수 없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며, 학교에서도 동성애 문제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자유가 아닌 방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할 수 없으며, 만일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공의는 무너진다”고 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남녀 간의 평등을 넘어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평등’은 헌법과 관련 법률이 규정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법적·사회적 동등을 뜻하지만, ‘성평등’은 동성혼, 성전환 권리, 포괄적 젠더 교육, 성 중립 화장실 등의 정책적 확장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두 단체는 모두 “현행 여성가족부가 실효성 부족, 예산 낭비, 남성 역차별 논란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한 명칭 변경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소멸의 심각한 저출생의 위기 가운데,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이 해체된다면 저출생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윤리의 기반이 무너지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위 여성 스포츠라는 것이 무너지고, 남성 중심의 의무 병역체제, 성별에 따른 시설 구분 등이 모두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이러한 것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기공협은 “국정기획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체제를 파괴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는 ‘성평등’을 전제한 여성가족부의 개편 논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출처: 기독교일보, 국민일보 종합).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27-28)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예레미야애가 3:40-41)

하나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성이 있다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라의 정책까지 바꾸려는 시도 앞에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 정체성마저 흔들며 악을 선하다 하는 악한 세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절대 기준인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우리의 마음과 행위들을 돌아보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나라를 파괴하려는 어둠의 간계를 대적하여 거룩한 손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로 일어나 이 땅에 주의 뜻 이뤄지게 하여 주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로 피하리이다”

북, 국가계획 달성에도 배급·월급 미지급...당 간부도 밀려
신포조선소는 노동자들 책임성을 이유로 무보수 강제 연장근무 지시



북한 당국이 국가 생산계획을 완수한 공장, 기업소에 배급과 월급을 보장한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심지어 당 간부들도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양강도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2025년 상반기 국가 생산계획 완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계획을 완수한 공장, 기업소들에도 배급과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16일 “양강도에서 올해 상반기 국가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공장, 기업소들의 명단에 해산목재일용품공장도 있다”며 “하지만 이곳 노동자들은 올해 국가로부터 배급과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월, 근로자들의 월급을 인상할 당시 중앙에서 ‘국가계획을 완수한 공장, 기업소들은 무조건 배급과 월급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에는 몇 번 약속을 지켰지만 올해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산기초식품공장과 해산시멘트공장의 노동자들 역시 국가 생산계획을 완수했음에도 올해 배급과 월급을 받지 못했고 해산청년광산과 용하광산의 노동자들은 국가가 아닌, 외화벌이 기관의 도움으로 배급과 월급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중앙에서 약속대로 배급과 월급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하반기 국가 생산실적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강도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도 “국가계획을 완수한 공장, 기업소들은 배급과 월급을 제때에 주는 것과 함께 분기에 한번씩 상금까지 준다는 것이 2022년과 지난해 반복되는 약속”이었지만 “배급소는 지난해 몇 번 배급을 주는 흉내를 냈을 뿐, 올해는 식량이 없다는 구실로 아예 문을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행정기관의 간부, 의사나 교사와 같은 공무원들도 올해 배급을 받지 못했고 월급의 경우 현재 도당의 과장급 이하 간부들도 4달분이나 밀려 있다며 “도당의 간부들도 월급이 밀리는 수준이면 힘없는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아무리 국가계획을 완수했다 해도 월급을 받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구축함 진수 실패 사고로 책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친 것과 관련, 신포조선소가 노동자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무보수 연장근무를 강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런 강제 연장근무가 노동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일부 노동자들은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열악한 조건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인데 이것을 책임성 부족, 충성심 부족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이라며 “애국심으로 용접이 되겠느냐”며 비꼬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자유아시아방송, 데일리NK 종합).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시편 57:1-2)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돌지어다(잠언 22:16-17)

하나님, 북한 당국이 국가 생산계획을 완수한 자들에게 배급과 월급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사고까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충성심을 요구하는 김정은 정권의 횡포를 꾸짖어 주시고, 날로 악화하는 식량 사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북한에 은혜를 베푸사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지존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주께로 피하여 나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 들려지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2022 개정 교과서, 이념 편향 논란…국회사 공개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발표회,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2025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교과서들의 ‘편향된 이념’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편향된 이념으로 물든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발표회’가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배숙 의원은 현재 전 세계가 ‘성 혁명’의 흐름 속에 있으며,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 개념을 강화하려는 이념적 도전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간된 교과서에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젠더 정체성’ 등 제3의 성 개념이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교과서가 다음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 도구인 만큼, 헌법과 사회적 합의 범위 내에서 편찬되어야 하며, 특정 이념에 편향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발표회 분석 결과가 교과서 개정에 참고돼 균형 잡힌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교과서 속 문제점이 출판사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해냄에듀의 국어 교과서는 다수의 좌성향 문학작가들의 작품들이 수록된 것으로 지적됐다. 문학 지문에는 월북 작가인 현덕과 이태준의 작품이 실렸으며, 조정래·신동엽 등 좌성향 인물의 문학이 과도하게 배치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대본을 수록했는데, 이는 10대 임신 등 민감한 주제를 학생 인권 이슈로 포장해 청소년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족의 다양성을 언급하며 여·여 가족 구성을 그림으로 동성 가족을 보여주고 다양성, 포용, 다름 이해 등 전반적으로 다원주의가 노골적으로 기술됐다. 차별·혐오 언어 금지 항목은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것처럼 기술됐다고 지적했다.

보건 교과서에서는 성과 건강 단원이 문제가 됐으며, 94쪽에서는 “원시 부족에서 여성도 사냥했다”는 워싱턴대 연구가 검증 없이 인용돼 젠더 개념의 고대 실재를 전제로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95쪽에는 성인지 관점에서 화장실 수 증대까지 논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 교과서에서는 태아기를 제외하고 연표를 0세부터 시작해 생명 존엄 교육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화론을 절대화하는 기술 방식, 브렉시트를 부정적으로만 다룬 사례도 천재교과서의 문제로 지적됐다.

동아출판의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다문화와 종교 이해 단원이 포함됐는데, 이주민의 문화 적응보다 문화 상대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고, 분단의 원인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북한의 남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접하기 어렵고, 비판적 사고 능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출처: 기독교일보, 크리스찬투데이 종합).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5-16)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린도후서 10:4-5)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가치들이 다음세대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에 스며들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으로 가르쳐야 할 교과서가 특정 이념에 치우쳐 우리 아이들의 사고와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참담함을 돌아보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책망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은 일에 대해 부모세대와 교회가 회개하여 주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질문에 그리스도를 택하며 복종케 하사 주의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어 이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